

구약성경의 역사적 고찰



열왕기상 4:21에 따르면 솔로몬이 통치한 지역은 유프라테스강부터 이집트의 접경 지역까지라고 합니다. 열강들이 널려 있는 가운데, 단기간에 이렇게 넓은 국토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발굴 작업을 하였지만, 구 왕국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화 속의 잔재를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이스라엘에서 수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시대가 역사 속에 존재한 것처럼 미화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Ur)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기원전 21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1000년 이전에 갈대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이주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Philistines)의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오나, 블레셋이라는 지명 또한 기원전 1200년 이후에 나타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에는 낙타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낙타를 가축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00년경이고, 타나크[유대교의 경전]에 자주 언급되는 낙타대상들이 낙타에 고무, 향유나 몰약을 싣고 다닌 것은 기원전 8세기가 되어서야 보편화되었다.” 1)

“창세기 23:16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바빌론 유배 이후에 사용되던 주화-저자 주]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일부 비평가는 당대에는 주조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인들은 읽거나 쓸 줄 몰랐기 때문에 문서를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이웃 부족과 상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갈대아의 우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책이 빨라야 기원전 6세기 이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갈대아는 기원전 7세기에 나보폴라사르(Nabopolassar)왕이 남부 바빌로니아에 건립한 왕국이다.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었던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강력한 아수르바니팔이 기원전 627년에 죽자, 나보폴라사르가 반란을 일으켜 ‘갈대아 제국’을 건립했다. 이 제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사라진다.” 3)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히브리인을 ‘샤수(Shasu)’라 했는데, 그 의미는 ‘맨발로 이동하는 자’이다. 이들은 기원전 13세기 파라오 메르넵타(Mernepta, 기원전 1213~1203 재위) 석비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이 석비에는 고대 이집트어로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그 자손은 더 이상 없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샤수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왕국] 지역 출신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4)

The “Israel” Merneptah Stele (1205 BC)



연재 3회 대홍수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천주교에서 말하는 식의 출애굽이 람세스 2세 때 이루어졌다면 람세스를 이어받아 왕이 된 메르넵타가 기원전 1205년에 이와 같은 석비의 기록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기원전 1450년경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400~48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들어섰다고 한다면 다윗은 기원전 1000~961년까지 그리고 솔로몬은 기원전 961~922년까지 통치했다는 주장이 그나마 연대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5)

하지만 이집트의 시삭왕[(Shishak), Sheshong I(기원전 935~914 재위)]이 기원전 92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남유다국을 점령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열왕기상 14:25-26). 구 왕국의 분열이 기원전 922년에 이루어졌고 솔로몬이 이때까지 통치하고 있었다면,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침공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경에 묘사된 대로 엄청난 규모의 왕권을 누리고 있었고 이들에 맞서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단순한 기록만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도 모세의 이집트 대탈출 우화와 마찬가지로 상상의 나라 속에 그려진 신화에 불과합니다.

구약성경에 실명이 언급되는 파라오들이 있는데, 자주 언급되는 왕은 시삭으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피해 몸을 숨겼던 왕으로 나옵니다(열왕기상 11:40). 다음에 등장하는 이집트 왕은 열왕기하 17:4에 나타나는 소(So)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기 전에, 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건을 기술하며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집트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왕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46:2에 나오는 느고왕[Neco, (네카우 II, 기원전 609~593 재위)]입니다. 요시야왕(Josiah, 기원전 640~609 재위)은 이집트 느고왕에 맞서 벌인 므깃도(Megiddo, 열왕기하 23:29, 역대하 35:22)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칼에 베여 죽고, 역대하에서는 활을 맞고 중상을 입은 후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유다국은 이집트의 속국이 됩니다.



예레미야 44:30에만 유일하게 언급된 이집트의 호프라 왕[Hophra라는 이름을 갖는 아프리스(Apries, 기원전 589~570 재위)]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Zedekiah, 기원전 597~587)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Nebuchadnezzar, 기원전 605~562)의 실명이 나오는 곳에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던 중에 재워했던 파라오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모시던 왕의 이름이나, 모세가 대담하게 이집트로부터 대탈출(출애굽)을 감행했을 당시 유대인들을 혼내주려고 쫓아온 이집트 왕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나 이후 대부분의 이집트 왕을 이름 없는 파라오(그것도 대문자 Pharaoh)로 부릅니다. 이는 구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관련된 열강의 왕 연대기

함무라비(Hammurabi)	기원전 1728~1686	구바빌로니아 왕국(함무라비법전)
람세스 2세(Ramesses II)	기원전 1279~1213	이집트왕. 출애굽기가 일어난 시점의 이집트 통치자라는 설이 있음
메르넵타(Merneptah)	기원전 1213~1203	이집트 왕, 람세스 2세의 아들
시삭(Shishak)	기원전 935~914	이집트 왕, 기원전 925년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속국으로 만듦
살마네세르 3세(Shalmaneser III)	기원전 859~824	아시리아 왕, 사마리아(북이스라엘국)를 속국으로 만듦, 기원전 853년 카르카르 전투.
아닷니라리 3세(Ada-nirari III)	기원전 807~782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기원전 745~727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Sargon II)	기원전 722~705	아시리아 왕, 기원전 722/721년 북이스라엘 멸망
산헤립(Sennacherib)	기원전 705~681	아시리아 왕, 남유다국을 속국으로 만듦
아르크메니스(Achemenes)	기원전 705~675	페르시아 왕
테이스페스(Teispes)	기원전 675~640	페르시아 왕
키루스 1세 (Cyrus I)	기원전 640~600	페르시아 왕
느고 (Neco II)	기원전 609~593	이집트 왕, 기원전 609년 벌어진 므깃도전투에서 요시아 왕을 죽임
네부카드네자르 2세	기원전 605~562	신바빌로니아 왕,

(Nebukadnessar, 느부갓네살)		바빌론 유배(기원전 587~538)
캄비세스 1세(Cambyses I)	기원전 600~559	페르시아 왕
벨사살(Belshazzar)	기원전 562~539	신바빌로니아 마지막 섭정왕
키루스 2세(Cyrus II)	기원전 550~530	신바빌로니아 멸망(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통치 시작
캄비세스 2세(Cambyses II)	기원전 530~522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Darius I)	기원전 522~486	페르시아 왕
세레스(Xerxes)	기원전 486~465	그리스 침공하려다 실패 (기원전 480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 Artaxerxes I)	기원전 465~433	여선지 노아다(Noadiah)와 다른 선지자들의 험방(느헤미야 6:14)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시기 (기원전 521~432, 에스라 4:24))
다리우스 2세(다리오, Darius II)	기원전 433~404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아닥사스다, Artaxerxes II)	기원전 405~358	페르시아 왕
알렉산드로스 3세(Alexander III)	기원전 336~323	페르시아 침공 (기원전 331년)

철기 시대:

인류 역사에서 철기 시대가 시작된 시점은 기원전 1200년경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철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의 기록이라는 모세오경에 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22에 철이 처음 언급되는데,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는 구절입니다. 이때는 기원전 310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청동을 이용하여 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을 시절에 철을 정제하고 제련하여 도구를 만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신명기 8:9에도 모세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 것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원전 1400년대나 1300년대의 일로 추정되는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의 기록으로, 이런 것이 가능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난 중국의 청동야금술은 기원전 3000년대에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철 생산기술을 기원전 500년경에 확보할 수 있었다” 6)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59년에 처음 상영된 『벤허』라는 영화에서 벤허가 이스라엘 총독과 전차 경주를 하여 이기는데 이때 총독은 멋진 문양으로 만든 청동기 바퀴를 달고 나왔고 벤허는 투박한 디자인의 철 바퀴를 달고 나와 바퀴가 서로 마주치며 굽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벤허의 마차는 철 병거였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경주가 벌어진 시점이 서기 20년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철 병거로 멋진 문양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1) *The Laughing Jesus*, Timothy Freke & Peter Gandy, Three Rivers Press, 2005: 28
- 2) *The Woman's Bible*, Elizabeth C. Stanton, Prometheus Books, 1999: 41
- 3) *신의 위대한 질문*, 배철현, 21세기북스, 2015: 87
- 4) *신의 위대한 질문*, 배철현, 21세기북스, 2015: 283
- 5) *Atlas of the Bible Lands (성경지역 지도)*, edited By Harry T. Frank, Hammonds, 1990: 40
- 6) *Guns, Germs, and Steel*, J. Diamond, W.W. Norton & Company, 1997: 330